

[기획] >> 3면
우리학교 의결구조 문제

[심층] >> 5면
불붙은 등록금 인상 논의

[사회] >> 8면
국민연금 고갈문제

[인물] >> 12면
김민정 경찰청 송무관을 만나다



우리학교는 최근 다양한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학과 소속의 교내 구성원은 여러 피해를 입게 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신설학과 현황△신설학과 설립이 기존학과에 미치는 영향△우리학교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우리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개최해

지난달 27일 우리학교에서 '2023학년도 한국외대 신입생 입학식'이 개최됐다.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4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진행됐다. 입학식은 양 캠퍼스(이하 양캠퍼)에서 각기 별개의 행사로 치러졌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입학식은 당일 오전 오바마홀(Obama Hall)에서 개최돼 약 1,500명의 신입생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은 같은 날 오후 백년관 컨퍼런스홀(Conference Hall)에서 입학식을 가졌다.

양캠퍼 학생인재개발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재학생 축하공연△신입생 축하영상 상영△기수단 입장△국민의례△내빈소개△입학허가 선언△신입생 선서△총장 축하사총동문회장 축하사교가 제창 순으로 구성됐다. 23학번 신입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재학생들의 공연이 그 중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설캠에선 우리학교 관현악단 휴스필(HUFS Phil)의 차이코프스키(Tchaikovsky) '꽃의 왈츠' 공연과 합합 동아리 휴스도비(HUFS DOVY)의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글캠에선 중앙

합합동아리 슬랩업(Slap Up)과 우리학교 한국학과 한국무용학회 나빌레라가 각각 무대를 선보였다.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은 축사에서 "학업에 정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랑스러운 외대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학교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총장은 "큰 꿈을 꾸고 다양성을 즐기며 공존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신입생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신입생 강민규(일본·용일지 23)씨는 "입학식에서 우리학교만이 갖는 특색있는 장점들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후에 펼쳐질 학교생활이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우리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동 인증 학점제 현판식 개최해

지난달 22일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1층 교직원학부실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하 ESD 교육) 확산을 위해 도봉구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ESD 교육 공동 인증 학점제' 현판식을 개최했다. ESD 교육은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에게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불평등△빈곤△생태 다양성의 손실과 같은 범세계적 과제를 풀어가는 △가치기술 △지식△태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 수준의 '공동 인증 ESD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ESD 교육 공동 인증 학점제는 3개 기관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려 △국내외의 전문가 특강 및 토론△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강좌△학습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문제중심학습(PBL) 운영△ ESD 교육 프로젝트 등으로 운영된다. 이는 다른 대학교에서 운영되는 ESD 교육 관련 과목과 차별성을 둔 '미래형 ESD 교육과정'으로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해 1학기부터 우리학교 사범대학 교직학부에 개설된 'ESD 쟁점과 이론(1학기/2학점)'과 '현장실습(2학기/2학점)' 강의는 지난해 △도봉구△우리학교△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1년여간 시범 사업과 자체 연구를 지속해 이룬 결실이다. 김용원 우리학교 사범대학 교수는 "최근 ESD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강의실에서 이뤄져 사회변화와 현장성이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학교의 ESD 교육은 최초로 △국제기구△대학교△지역사회의 공동 협업에 기반한 학점제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ESD 교육과 관련한 심화된 학술연구와 교육과정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posco
INTERNATIONAL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with POSCO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학교의 불합리한 의결구조,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선

학교에 의해 개편된 양캠퍼스(이하 양캠프)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규정이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기숙사 식당 의무식 시행△대학원생 및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성적평가방식 변경△학부 수업시간 변동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일부 학생들은 규정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의 부재를 문제 삼으며 학교와 학생 간의 원만한 의견 조율을 통한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타협과정이 생략된 규정 변경△우리학교 의결구조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타협과정이 생략된 규정 변경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는 이번 학기부터 기숙사 흡스돔(HUFS DORM) 사생에게 식당 의무식을 시행했다. 지난해 11월 글캠프 제10대 총학생회 ‘발도돔’은 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의무식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숙사 식당 의무 이용을 반대하는 인원이 찬성 측보다 우세했음에도 학교 측은 식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과 저조한 식당 이용률을 이유로 식당 운영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을 우려해 기숙사 식당 의무 이용 규정을 도입했다. 흡스돔 학사운영팀 관계자는 “과반수의 학생이 의무식에 반대했더라도 식당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시행된 첫날부터 한정된 운영시간과 음식량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식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김지선(통번역·태국어 21) 씨는 “대다수 학생이 반대했음에도 의무식 제도를 통보한 학교 측의 행보가 의문이다”며 “의무식에 반대하지만 기숙사에 거주하려면 억지로라도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글캠프의 학부 수업시간에도 변동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했던 기존의 1교시 수업시간을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와 동일하게 오전 9시로 변경했다. 지난해 11월 우리학교 글캠프 제43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외대의 봄’은 학부 강의 시간 변동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학생의 84.95%가 강의시간 변동에 반대한 바 있다. 외대의 봄은 해당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무처와의 면담도 실시했으나 학교는 학부 강의시간 변동을 당장 이번 해 1학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글캠프 총학은 “학교 본부에 강의시간 변동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으나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캠프의 대학원생 및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이 인상됐다. 지난달 2일에 개최된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이번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재정난을 언급했다. 학생 위원들은 2023학년도 대학원생 및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했지만 등심위 내 다른 위원들의 찬성으로 인해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양캠프 총학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추후 인상분 활용의 명확한 계획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하다며 성명문 부착 및 피케팅(picketing)을 진행했다. 또한 등심위의 불공평한 의결구조를 지적하며 학교의 통보식 행정에 불만을 표했다. 고성우(영어·영문 17) 씨는 “학생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학교의 3주제 안에 학생이 있음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의결구조의 문제점

우리학교의 일방적인 통보 관행은 학내 의결구조의 문제점과 직결된다. 특히 우리학교 의결구조 중 △교원징계위원회△등심위△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회)△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총장선거 내 학생 투표반영 비율은 학내 의결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학교 등심위와 총추위는 위원회 소속 학생 위원 모두가 의결 사안에

반대해도 나머지 인원에 의해 안건이 가결될 수 있는 불평등한 구조로 구성돼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등심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등심위 구성원은 △교수 4인△외부전문가 1인△학생 4인이다. 우리학교 등심위에 규정상의 문제는 없지만 외부전문가 1명은 학교와 교수위원회로부터 선임된 외부전문가 교수위원회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양캠프 총학은 총장과의 면담에서 등심위 외부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학교 등심위 규정 제3조 2항 3호에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협의를 통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등심위의 외부전문가 선임과정에 규정 위반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6개월간 운영된 총추위 또한 △교수 40인△교직원 10인△학생 10인으로 구



▲등록금심의위원회 피케팅에 참여하는 학생들(출처: 설캠프 총학 SNS)

성돼 교수협의회의 결정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구조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며 대평회가 설치되고 학생도 학생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학생들은 대평회에서 의결 권한이 없고 오직 자문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평회에서 학생이 학교의 학칙 개정 및 제정과 같은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변화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우리학교 총장선거에서의 학생 투표반영 비율은 다른 학내 구성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현재 총장선거에서 각 주체의 투표반영률은 △교수 90%△교직원 5%△학생 5%로 선거 제도 개편을 비교적 최근에 진행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선거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대학 구성원 참여 직선제를 도입한 다른 사립대학교의 학생 투표반영 비율은 △상지대학교 22%△성신여자대학교 9%△이화여자대학교 8.5%로 이에 비해 우리학교의 학생 투표반영률은 매우 낮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학교 학생 투표반영률은 겉보기에 학생들에게 총장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듯 하나 실질적으로는 학생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2021년에 시

행된 우리학교 총장선거에 대해 “교수와 학생 간 투표인정 비율로 보면 교수 1표가 학생 610표에 해당한다”며 “학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학생과 관련돼 있는데 반영 비율 5%로는 학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불가하다. 교원징계위원회는 대부분 법인의 이사와 교수로만 구성되는데 전문위원 비중이 비교적 낮아 전문성을 띄기 어렵다. 또한 학생들은 처벌이 이뤄지는 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배귀주(상경·국통 20) 설캠프 제57대 총학생회장(이하 배 회장)은 “학생들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기에 학생들과 가장 직결된 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논의를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학교의 비민주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학교의 의결구조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생들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상적인 대학 자치가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 배 회장은 “민주적인 대학교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건설을 통해 제한적인 의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논리 구조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학교의 독점적 의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의결 기구와 개방형 이사제의 현실화△총장 임명 및 운영방식 개편△학생 자치 기구의 법제화 등을 논의해 학내 구성원들의 주체화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캠프 총학과 학교 주도의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 학생기구는 △등록금△취·창업△학교시설 등에 대한 교직원과의 면담 및 총장과의 대화를 기획하는 등 꾸준한 소통 창구를 마련 중이다. 오태경(응인 19) 글캠프 제57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학기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학생통학버스를 비롯한 교내시설 개선 및 복구에 대한 학교 측의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반영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설학과 설립과 기존 학과 존립,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위해선

우리학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과를 신설하고 있다.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엔 각각 융합인재학부와 글로벌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됐다. 하지만 기존 학과 소속의 교내 구성원은 신설학과 설립으로 인해 신입생 및 전공

교수의 수가 줄어 피해를 입게 됐다. △우리학교 신설학과 현황△신설학과 설립이 기존 학과에 미치는 영향△우리학교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신설학과 현황

지난해 서울특별시 내 10개 대학교의 신설학과 인원선발 규모는 총 1,054명으로 이는 지난 2021년과 비교해 306명 증가한 수치다. 전국의 대학교가 신설학과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학생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만들어 다수의 입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홍정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장은 “신설학과나 특성화 학과는 대학교들이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만든 학과들로 취업에 있어서도 비교적 미래지향적이고 안전하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주축한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발표한 ‘대학 구조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다음 해부터 대학교 내에서 학과 통·폐합과 학과 신설에 대한 자체적인 결정이 가능해진다. 이전엔 대학교가 학과 통·폐합 및 신설을 실시하기 위해선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교원 유지 비율 등을 조절해야만 했다. 그러나 학과 통·폐합과 신설에 자율성이 부여됨에 따라 우리학교를 비롯한 전국 대학교의 신설학과 관련 업무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관계자는 학과 신설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여파로 대학교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며 “최근 융복합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기존 학과들의 교육과정으로는 이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학과 개편을 통해 학교 발전을 꾀하고 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LD학부는 지난 2014년 42명의 정원으로 신설됐다. 또 하나의 신설학과인 LT학부는 지난 2015년에 총 16명의 입학 정원으로 설립됐다. 그리고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지난 2021년부터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융합인재학부를 설치했다. 지난해에 신설된 글로벌자유전공학부도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학과 신설을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에 진행된 전체교수회의에서 우리학교는 ‘신설학부 구상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설캠엔 첨단기술을 다루는 학과를 설립하고 글캠엔 총 2개의 단과대학과 6개의 신설학과를 설립할 계획이다. 신설 논의 중인 단과대학은 글로벌문화산업대학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와 더불어 신설 예정인 글로벌관광학부 및 디지털콘텐츠학부가 포함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AI융합대학을 설립해 산하에 AI데이터융합학부와 Finance & AI융합학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공과대학에 반도체전자공학부와 기후변화융합학부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계획 중인 신설학과의 신입생 선발 규모는 △글로벌관광학부 80명△디지털콘텐츠학부 80명△AI데이터융합학부 50명△Finance & AI융합학부 50명△기후변화융합학부 50명△반도체전자공학부 50명으로 파악됐다.

◆신설학과 설립이 기존 학과에 미치는 영향

신설학과 설치를 위해선 입학정원 및 전공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입학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한정된 수도권 대학교의 총 입학정원을 학교가 임의로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1항과 제18조에 의거해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 현상을 막기 위한 입학정원 증원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는 기존 학과의 입학정원 감축 및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이하 폐과존치)를 통해 신설학과 입학정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단,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르면 최근 3개년간 평균 결손 인원 범위 안에서 반도체 등의 첨단분야 학과 신설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학교 설캠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98명을 임시로 증원에 신설학과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2027학년도까지 첨단분야 학과 신설로 증원된 학생을 포함한 학교의 전체 입학정원을 해당 학과가 신설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따라서

이후 사범대학을 개편할 당시 확보된 입학정원 30명과 더불어 △KFL학과△LT학부△공물어과를 제외한 전 학과별 입학 정원의 4.9%를 각출해 2027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학과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신설학과 입학정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LT학부와 융합인재학부 신설 당시에도 동일한 방법이 사용됐다. 지난 2015년 LT학부를 신설할 당시엔 △LD학부 26명△영어대학 3명△경영학부 2명△일본언어문화학부 2명△중국언어문화학부 2명의 입학정원을 각출해 신설학과 입학정원을 확보했다. 지난 2021년에 신설된 융합인재학부의 경우 △영어통번역학부 40명△이탈리아통번역학부 10명△중국어통번역학과 5명△인문대학 4명과 더불어 폐과존치한 아랍어통번역학과 입학정원 45명을 각출해 정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소수라 하더라도 학과 인원을 각출하는 사안은 해당 학과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다. 이현석(일본·일인문 22) 씨는 “신설학과 입학정원 확보를 위해 기존

택의 폭이 좁아지거나 강의 질 하락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교원의 입장에서든 기존보다 더 많은 강의를 준비해야 하기에 수업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우리학교 학생 A 씨는 “학과 신설은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기존 학과의 인적자원에 손을 대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신설학과를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가 보완해야 할 점

우리학교가 신설학과 설립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학과 학생은 학과 입학정원 및 교직원 수가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된다. 이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학과의 교수와 학생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돼야 할 고려사항이다.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관계자는 “학생 대상 공청회 및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며 “이를 토대로 제도를 만들고 학교 규정에 반영해 기존 학과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리학교가 신설학과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문제다. 앞으로 글캠에 설립될 예정인 신설학과에 필요한 입학정원은 총 360명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추가적인 폐과존치를 통해 상당한 입학정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에 진행된 학과 폐과존치 문제도 우리학교 학생의 반대에 부딪혔기에 학교의 추후 행보는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2021년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에서는 신설학과와 관련해 학생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 경희대 학생들은 설캠 경영대학에 빅데이터응용학과가 신설된다는 소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학과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응용학문을 다루는 빅데이터응용학과 신설은 순수학문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둔 설캠의 존재 의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빅데이터응용학과가 기존 국제캠퍼스의 산업경영공학과 및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내 구성원의 견해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희대 설캠엔 빅데이터응용학과가 설립됐다. 교직원과 학생의 반대의 견해도 불구하고 신설학과 설립을 강행한 것이다. 이렇듯 신설학과와 관련된 우려를 축소하기 위해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안에 대해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신설학과 설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학과 학생의 학습권 문제 역시 학교 측이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학과 신설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신설학과 설립엔 기존 학과의 피해가 수반되는 게 불가피하다. 때문에 신설학과 관련 사안은 학내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과 신설 논의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본 사안과 관련해 △교직원△학생이 자신의 이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우리학교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다.



▲우리학교 발전 로드맵 (출처: 우리학교 2022 홍보 리플릿)

학과 정원도 줄어들수록 기존 학과의 교내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 신설학과 설립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에선 신설학과에 필요한 교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겸직 활용△겸임·초빙교원 활용△전임교원 신규 초빙△전임교원 재배치의 방식을 시행 할 예정이다. 우리학교의 신설학과 구상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교원임용이 가능한 인원은 각 신설학과당 최대 2명이다. 기존 학과 교수의 수는 평균 8명으로 이는 학교에서 계획 중인 신설학과 신규교원임용 인원인 2명보다 4배 높은 수치다. 이는 신설학과를 설립할 시 기존 학과의 교원이 신설학과 교원 업무까지 떠맡게 되거나 소속변경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신설 논의 중인 글로벌관광학부와 디지털콘텐츠학부는 지난 2021년 신설된 융합인재학부의 세부모듈과 유사·중복학과가 될 여지가 있어 기존 학과인 융합인재학부 교원의 겸임이나 소속변경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되는 실정이다. 기존 학과의 교원이 다른 학과로 발령되거나 다른 학과의 교원 역할을 겸임하면 기존 학과 학생은 강의 선

다시 불붙은 대학교 등록금 인상 논의, 모두의 금전적인 고민을 해결해야 할 때

지난 2010년 이후 14년간 동결 기조를 이어오던 등록금이 최근 인상 조짐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대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내세우며 동결됐던 등록금의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달 14일 교육부 출입 기자단의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

제 대학교 총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번 해부터 다음 해까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등록금 인상 기류에 속도가 붙었다. △14년간 동결된 등록금의 역사△재점화된 등록금 인상 논의△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

◆14년간 동결된 등록금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등록금은 매해 뜨거운 쟁점이었다. 2000년대 초·중반 까지 각 대학교의 학생회에선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됐다. 서울특별시 청계광장은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로 북적였다. 등록금 정책이 논의되기 이전인 지난 2008년엔 우리학교를 비롯해 △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한양대학교 등의 대학교가 10%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계속하자 정치권에선 등록금 관련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이때부터 ‘반값 등록금’이란 용어가 등장했고 지금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201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도입됐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각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물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해당 대학교에 재정 및 행정적 제재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치솟은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2011년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한 대학교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제도는 대학교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에 따라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달리하는 제도다. 지원금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그동안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교육대학교와 일반대학교 194개 가운데 96.9%에 해당하는 188개의 대학교가 본 제도 시행 이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재점화된 등록금 인상

지난 정부에서도 대학교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엔 이번 해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며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대학교에 등록금 인상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최근 다시 불붙기 시작한 등록금 인상 논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물가 상승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대학교들의 계산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가 국내 고물가 현상으로 이어지며 물가상승률이 지난해의 두 배인 5.1%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7%의 1.5배인 4.05%까지 올랐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음 해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은 5.085%로 추산된다. 실제로 동아대학교(이하 동아대)는 이번 해부터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했다. 교육계에선 동아대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익인 50억 원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20억 원보다 30억 원가량 많아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부산교육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 등도 2023학년도 등록금을 3-4%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 물결은 대학교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제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8일 장상운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교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교에 대한 추가 제재나 동결 및 인하한 대학교를 위한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이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하 임 연구원)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거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대학교들은 등록금 수익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계산해보고 결국 등록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 대학교의 경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경동대학교△경주대학교△세한대학교△영남신학대학교 등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등록금을 올리면 신입생 유치가 더욱 어려워져 쉽사리 등록금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도 힘든 실정이다. 전북권 사립대학교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에 남은 학생이 없는데 국가장학금까지 제한되면 지방 대학교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등록금 인상의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으론 계속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이 지목된다. 지난 1월 대교협은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의 2022년 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679만 4,000원으로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이하 사립대)는 지난 2017년부터 매해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교협이 발표한 ‘사립대 재정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은 각각 14조 5,251억 원과 14조 6,806억 원으로 평균 약 1,55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학교는 △도서관립비△실험실습비△연구비 등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규모를 지난 2011년 1조 7,68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218억 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령인구의 감소와 오랜 기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대학교가 재정난에 몰린 것은 사실이다. 등록금 인상이 대학교의 가장 손쉬운 재정 확보 방안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며 재정난을 해결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임 연구원은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다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중 비싼 축에 속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OECD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27개국 중 우리나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은 8번째로 높았고 사립대의 등록금은 18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대학교의 높은 등록금 의존도 역시 등록금 인상의 설득력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2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대학 본부와 법인은 전입금을 납부하고 재정 구조를 개편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0년 결산 기준 사립대는 평균적으로 재정의 54%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재단 전입금은 8%에 불과했다. 특히 사립대의 회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교육부의 대학교 감사에서 교비회계 지적사항은 428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대학교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정부는 재정지원대학교를 선정할 때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기반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시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1년 대학 진단 지표’에 따르면 대학교 진단 지표로 △대학 발전계획△법인 책무성△전임교원 확보율△학생총원율 등이 존재했지만 등록금과 관련된 지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의 진단 지표를 개선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등록금 인상률을 진단 지표에 반영한다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 및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은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 1,287달러(약 1,330만 원)로 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OECD 평균인 1만 7,559달러(약 2,070만 원)의 64.3% 수준이다. 그중 정부 부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323달러(약 509만 원)로 38개국 중 32위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민간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 역시 지난 2019년 기준 0.6%로 OECD 평균인 0.9%보다 낮았다. 이에 고등교육 예산 증액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는 방안과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단순히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을 늘려주는 고등교육 재정확충법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구조조정 등 대학교에서도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14년간 동결됐던 등록금이 인상될 기류가 보이자 등록금 인상을 놓고 △대학교△정부△학생 간의 견해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학교는 재정 구조를 개편하고 정부는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등록금 문제가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만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시원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우즈베키스탄, 희로애락을 함께한 국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세계경제외교대학교(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이하 외교대)에서 공부했다. 여러 대학교 가운데 외교대를 선택한 이유는 언어에 특화된 학교인 만큼 우즈베크어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공용어인 러시아어도 배우며 현지 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였고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에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도 편리했다.

설렘과 걱정을 안고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충격이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 등록을 완료하고 휴대전화 유심(USIM) 교체 후 등록된 번호를 우체국에 신고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달리 입국심사 및 수화물 수령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됐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외형의 엘리베이터가 존재했다. 단수와 정전도 자주 발생했지만 현



지인들은 당연하다는 듯 생활했다. 처음엔 매년 놀랐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란 말이 있듯이 두 달이 지난 뒤에 대수롭지 않게 생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체적인 물가는 우리나라보다는 저렴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생활비로 최대 월 80만 원까지 소비했다. 사립마다 차이가 존재했지만 현지 음식은 개인적으로 입맛에 잘 맞았다. 다만 기름진 음식엔 반드시 차를 곁들이는 것을 추천한다.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 주류를 파는 가게와 일반적인 마트가 분리돼 있는데 주류를 파는



가게나 술집의 경우 대부분 러시아어만 사용한다. 수도에선 러시아어만 알아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외곽으로 이동하면 우즈베크어를 더 많이 사용하니 이점도 유의하길 바란다.

현지 교환학생으로서의 생활을 돌아켜 보면 평일엔 하교 후 △과제△운동△타슈켄트 탐방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부딪혀보려고 했다. 난 우즈베크어를 1학년 1학기 수준으로만 배우고 왔기에 처음엔 현지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수업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교환학생을 함께 간 학우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우즈베크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특히 현

지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 언어 실력이 빠르게 성장했고 잊지 못할 경험도 많이 했다. 주말엔 수도가 아닌 외곽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 중 '부하라(Bukhara)'는 중앙아시아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해 유독 기억에 남는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많이 호전되면서 해외 대학교로 떠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할 기회가 생긴다면 해외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오길 바란다.

양시훈(국제지역·중앙아시아 17)



읽어서 세계속으로

일본

<설국>

- 허무에 마음을 쏟는 일 -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얗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 섰다.’

첫 문장이 아니었다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내지 못했을 거다. ‘설국’의 첫대목은 독자에게 이 소설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지 알려준다. 우리는 설국을 읽는 것보다 ‘보는 것’으로 대해야 한다. 보통의 책처럼 줄거리를 따라가며 읽는 독법은 이 책에선 통하지 않는다. 작가의 문장을 마치 그림 그리

듯이 이미지화해야 하며 그렇게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음속에 글이 아닌 그림이 남게 된다.

이 책의 저자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이하 야스나리)는 1899년 오사카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야스나리는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다음 해에 어머니마저 잃는다.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은 야스나리는 조부모님의 손길 아래 자란다. 그러나 7세에 조모를 잃고 15세에 조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외로운 유년시절을 보낸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의 죽음을 마주해야 했던 야스나리는 고독과 허무 의식에 빠진 삶을 살았으며 이는 그의 작품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68년 일본에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설국’은 야스나리가 니가타현(新潟県)에 직접 머물며 집필한 책이다. 처음부터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쓰인 것이 아닌 연작의 형태로 9편의 단편을 모아 소설로 출간했다. 책의 주인공 ‘시마무라’는 부모님의 유산 덕분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30대 중반의 남성이다. 그는 서양 무용에 관한 연구를 하며 이따금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난다. 시마무라는 여행 도중 두 명의 여자 ‘고마코’와 ‘요코’를 만나게 된다. 고마코는 죽음을 앞둔 약혼자를 위해 기생이 되기로 자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시마무라는 이런 고마코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픈 이의 곁을 지키며 간호하는 요코의 행위도 그의 눈에 순수하고 무결하나 결국은 허무한 일로 비춰질 뿐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삶에도 허무한 일에 마음을 쏟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언젠가 누가 내게 허무한 일에 시간을 낭비해보고 싶어 외대학보에 들어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이 당시엔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이제는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듯하다. 비록 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책을 읽었지만 당신은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만 느껴질 때 설국을 읽어보길 바란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2023년 정기시험 안내

국내 최초,
최대 7개 언어 국가공인 인증(듣기·읽기)

FLEX로
플렉스
할래?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3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16~02.22	03.19	04.07(금)	04.21(금)
2회	04.27~05.03	05.28	06.16(금)	06.30(금)
3회	08.10~08.16	09.10	09.29(금)	10.13(금)
4회	10.05~10.11	11.05	11.24(금)	12.08(금)

※ 원서접수 마감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5,000원, 말하기 75,000원, 쓰기 75,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우리학교 연구소가 지닌 한계, 대학 연구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학교는 외국어 및 지역학을 중심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대학교 연구소에 비해 어문학 및 지역학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기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 연구소의 다양성 부족 문제는 차후 우리학교 연구 방향 및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연

구 분야를 넓히기 위한 움직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학교 연구소가 갖는 의의 및 우리학교 연구소 현황△우리학교 연구소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대학교 연구소가 갖는 의의 및 우리학교 연구소 현황

대학부설연구소(이하 대학연구소)는 기존의 학과 및 학부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학과나 학부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연구를 전문 연구인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연구소는 대학교의 연구 기능 활성화의 중추를 담당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학연구소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학과와는 달리 별도의 조직으로 취급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비를 대학교 내외에서 일정 기간동안 확보해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대학연구소가 기업연구소와 같은 외부연구소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대학교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인 교육과의 연계성이다. 연구의 △기간 △목표△성격△형태 등에 따라서 대학연구소는 상업성을 띠는 기업연구소와 교육기관인 대학교의 중간 성격을 지닌다. 대학연구소는 기업연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적△기초적△개인적△장기적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학교엔 현재 4개의 연구센터와 연구센터 산하의 연구소 33개가 존재한다. 그중 17개의 연구소에선 외국어 및 지역학에 대한 탐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개의 연구센터로는 △국제지역연구센터 △외국어문연구센터 △융합연구센터 △전문분야연구센터가 있다. 그중에서도 국제지역연구센터는 4개의 연구센터 중 가장 많은 수인 13개의 연구소를 총괄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경제△문화△사회△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실전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문 인력의 실용연수를 통한 기술 및 응용지식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해당 연구센터에선 △국제지역연구△국제지역정보△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이하 IASR)△International Journal of Foreign Studies(이하 IJFS)의 학술지를 창간했다.

◆우리학교 연구소의 문제점

우리학교 연구소 조직도에 의하면 4개의 연구 센터에 각각의 연구소가 소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학교 연구지원팀에 따르면 연구센터와 연구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 센터를 포함한 모든 연구 기관이 사실상 연구소로 통칭되고 있다. 우리학교 연구소 33개 중 29개의 연구소는 각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중 19개의 연구소는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연구소와의 소통이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나머지 4개의 연구소는 별도의 연구소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연구소의 연락처를 찾아볼 수 없어 연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연구소 홈페이지는 전적으로 연구소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기에 연구소 측에 홈페이지

이지 개선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구 센터의 경우에도 국제지역 연구센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홈페이지나 연락 수단이 미비해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한 ‘2022년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학교 연구소 중 △경제경영연구소△국정관리연구소△글로벌경영연구소△아프리카연구소△언어공학연구소△언어문화소통연구소△정보산업공학연구소△환경과학연구소의 경우 연구를 위한 전임연구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남미연구소의 경우 전임연구원이 9명으로 연구소별로 연구원 채용에 편차가 존재했다.

명목상으로 연구소가 존재하지만 소속 연구원 및 연구 실적이 부족한 부실 연구소 문제도 지적됐다. 우리학교의 △언어문화소통연구소△정보산업공학연구소△환경과학연구소의 경우 지난해 국내외 국제를 포함한 학술행사 개최건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연구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실제로 대학교육연구소의 ‘2019년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엔

외국어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센터	전문분야연구센터	융합연구센터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문학연구소 ·언어연구소 ·통번역연구소	·일본연구소 ·중국연구소 ·동남아연구소 ·중동연구소 ·영미연구소 ·중남미연구소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EU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 ·인도연구소 ·중앙아시아연구소	·경제경영연구소 ·철학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언어공학연구소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디지털인문학한국학연구소 ·언어문화소통연구소 ·정보·기록학연구소

▲우리학교 연구기관 조직도

부실 연구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대학연구소 중 약 62%는 연구원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유령 연구소’였다. 더불어 2019년 기준 전체 연구소 1개당 평균 전임연구원 수는 0.8명으로 전임 연구원이 부재한 연구소도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지역학 중심의 연구센터는 우리학교만의 장점인 동시에 한계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학교엔 어문학 및 지역학 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학과가 존재하지만 연구는 여전히 특정 분야에 편중돼있다. 다른 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문학 및 지역학 관련 학과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 긍정적인 한편 연구의 폭은 좁다고 볼 수 있다. 전문분야 연구센터와 융합연구센터엔 △경제경영연구소△기초과학연구소△환경과학연구소 등 다른 분야의 연구소들이 소속돼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 연구소의 다양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등의 성과를 이룩하는 다른 대학교의 사례가 주목받는다.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의 경우 ‘Human Engagement Institute’란 연구소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연구소에선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연구물 발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전문 서적 발간△정책연구 등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인문콘텐츠연구소’에선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토대로 윤리학적이고 철학적인 반성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연구소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관련 연구의 국제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학회를 창립하고 매해 1회 학제 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경우 ‘여성연구소’가 존재하는데 이곳에선 사회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성차별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문화하는 연구가 수행된다. 또한 복합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성차별을 파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성평등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술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엔 감정문화연구소란 연구기관이 존재하는데 감정을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 확립하고 감정이 △기술△문화△사회△정치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과 기능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연구소는 교육과정 개발 및 강좌 개설과 해외 연구자 초청 및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협력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에 우리학교 연구소 수의 두 배 이상인 72개의 연구소가 존재하며 △경영△경제△공학△기술△법학△사회과학△의학 등 특정 분야에

치중이 되지 않은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서울대의 경우에도 21개의 분야로 나뉜 분야별로 최소한 한 개에서 최대 16개까지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경희대도 68개의 연구소에서 어문학 및 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위해 연구소를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전임연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학교 일부 연구소는 전임연구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사립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자체규정만 충족하면 연구소를 쉽게 설립할 수 있어 부실 연구소가 나타나기 쉽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연구소 역시 자체적인 연구소 점검 및 개편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폭 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시기, 불안해진 국민 노후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제도다. 이러한 국민연금이 2055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재정추계 시산결과가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의 삶

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필연적 미래이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운용방식△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

시기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고령화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사회 현상이다.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해 저축이 줄어들고 재정지수를 악화시키는 등 경제에 부정적 파급 영향을 끼친다. 연금제도도 고령화 진행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됐다. 이에 각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공적 연금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연금개혁을 단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가 그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사고△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소득 활동 당시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39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는 2211만 명으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매월 지급받는 △노령연금△분할연금△유족연금△장제연금(1-3급)과 일시금급여인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장에일시보상금(4급)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공공성△수익성△안정성△유동독립성△유동성△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었으나 지난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을 갖게 되면 당연직용가입자가 돼 국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예측된 국민연금의 고갈

지난 2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이하 재추위)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향후 2041년부터 고갈이 시작돼 2055년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하고 수급자가 증가해 급여지출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재추위는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2023년 44.0%에서 2070년 84.2%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의 거시경제 변수도 보험료 수입 감소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국민연금 구조도 기금 고갈을 더욱 가속화 하는 요인이다.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회원국 평균인 1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생애 소득 대비 수혜 받는 연금의 비율은 31.2%로 납부한 돈의 3.5배를 연금으로 돌려받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납부 보험료의 약 2.3배를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약 1.5배 정도 재정 고갈이 빠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약 20년간 보험료와 기금투자 수익을 비롯한 연금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더 큰 구조로 유지됐기에 2041년부터 기금이 감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의 연금 운용방식도 고갈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금 재정 방식은 크게 △부과방식△부분적립방식△완전적립방식 3가지로 분류된다. 부과방식은 연금급여를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맞게 급여액을 조달하는 재정방식이다. 이는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급여비를 동일 기간 내에 보험료 등의 수입으로 확보해 운영한다. 원칙적으로는 적립되는 재원 없이 운영되는 것이다. 다만 유입과 유출 수준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영상의 효율을 위해 소규모의 유동성재원을 보유하기도 한다. 완전적립방식은 급여로 지출될 돈을 보험료 등의 수입으로 미리 적립해두는 연금재정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부분적립방식은 기금을 적립해 나가되 완전적립방식과 같이 지급할 연금액의 100%를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 부담을 일부 담보로 해서 지급할 연금액의 일부만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현재 부분적립방식으로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연금제도에선 인구구조와 기금운용수익률 모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후세대 부담을 기억하는 부분적립방식은 현 상황에서 미래의 지급 가능 기금을 보장할 수 없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논의되는 해결방안

이번 달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연금 적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혁 대책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먼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개혁이 주목받고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다. 현재 연금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번 해 42.5%인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에 따르면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정치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 고갈 25년 뒤인 2080년에 미래세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율은

35%에서 약 43% 수준으로 상승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미래 세대의 잠재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보조적 장치를 통해 경제 상수를 조정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면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는 개혁 방식도 가능하다. 자동조정장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험료 조정△연금급여△은퇴연령△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재원 고갈을 막는 시스템이다. 이는 연금급여가 △물가△연금 재정상태△은퇴 시 기대여명△임금에 따라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다.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독일△스웨덴△일본△캐나다△핀란드 등 OECD 회원국의 3분의 2 정도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근본적 재정안정화 정책은 될 수 없고 보조적 정책이란 한계를 갖는다. 정년 연장과 연금수급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제기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 55세에서 64세 사이의 핵심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2024년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는 매우 시시점이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연금 운용방식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여론도 존재한다. 이는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본적인 운용 방식에서의 변화를 꾀하는 대안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은 크게 기금을 쌓고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방식’과 매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로부터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나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부분적립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독일△스웨덴 등 연금 선진국들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다. 위 국가들은 초기엔 상당 수준의 기금을 비축했으나 급속된 노령화 또는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 등으로 적립기금이 급감하자 타협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 조달을 꾀했다. 한국경제원은 “앞서 제시된 4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모든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의 세대 간 공평성은 △공적이전△사적이전△연금△의료비 등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의 세대 간 배분이란 관점에서 인식해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연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서연 기자 06syko@hufs.ac.kr

www.사사한줄토픽.com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 측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검토 동참 요구해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이하 박 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요청했다. 같은 날 유가족협의회 측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박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추모 및 기록 시설 건립 계획이 부진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추모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 건강을 위한 ‘제로(Zero)’ 열풍, 그 뒤에 감춰진 사실

최근 건강을 관리하려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제로(Zero) 식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칠성음료는 탄산음료에 이어 주류에도 제로 마케팅을 적용해 칼로리를 약 25% 낮춘 상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 열풍이 없거나 낮은 제로 식품에서 설탕 대신 쓰이는 인공감미료인 ‘에리스리톨(Erythritol)’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 또한 에리스리톨은 혈소판을 활성화해 혈액 응고를 유발하고 심장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됐다.

경제 주택 가격 하락 전망한 한국은행,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지적해

지난 9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선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경기순환 주기 등을 고려해 이번 해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언급했다. 또한 향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융체계가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조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의 동반 하락이 주택경기 둔화 및 부채 축소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제 은퇴 연령 늦추는 프랑스, 시민들 반발 이어져

은퇴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 개혁이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 2일 프랑스 정부가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 법안 심의에 들어가자 프랑스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이 반대 파업과 시위를 진행했다. 여론조사에선 은퇴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반면 프랑스 정부는 연금의 견고한 재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개혁이 필수적이란 입장을 전했다.

흔들리는 한반도, 지진이 보내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

지난달 6일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모멘트 규모 7.8에 달하는 대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에 대한 미흡한 대비로 이번 달 기준 54,000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84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초래됐다. 지진 안전지대로 불렸던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각치 않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주기적으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한반도에서 평균 77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김광희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를 통해 우리나라 지진의 발생 원인과 지진 대비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김광희 교수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Q1. 판의 경계에 위치하지 않은 한반도에 최근 들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기상청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관측장비를 이용한 지진관측은 지난 1978년부터 시작됐고 처음엔 5-6개에 불과했죠. 그러나 기상청에선 지진관측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현재는 전국 280여 개의소에서 지진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대학교△연구소에서도 많은 수의 지진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처럼 국내에서 많은 지진 관측소가 운영되면서 지진관측 역량이 향상됐고 이전엔 인지하지 못했던 소규모의 지진까지도 관측할 수 있게 된 거죠. 원래도 발생했던 지진을 더 잘 파악하게 돼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한 것인지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한 건 아닙니다.

Q2.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내진 설계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율은 15.3%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법안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내진 설계 관련 법안은 비교적 최근인 1988년에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건 아니에요. 또한 내진 설계를 반영하더라도 이는 새로 건설되는 건물과 시설에 대한 것이지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건물과 구조물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을 보완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더불어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3.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지진 대비 및 피해 방지 법안을 발의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구조 및 구호 활동△내진 설계△대피 방안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진대응정책은 3단계에 걸쳐 수정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진대응정책은 과거 일본과 중국에서 발생했던 지진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책으로 제도적인 보완에 중점을 뒀어요. 그러나 세 번째 정책

은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지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및 입안됐습니다. 새롭게 향상된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수행한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4. 한반도엔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큰 활성단층들이 최대 450여 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활성단층들의 개수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까지 규모 5 이상의 강진 빈도가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에 비해 많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활성단층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5년간 조사가 이뤄졌는데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은 조사를 수행해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거 지진 이력과 현재 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육지에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포함한 영남권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영남권에 큰 지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활성단층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국에 비해 지진에 대한 위험은 적은 편이에요. △대만△일본△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주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Q5. 정부 조사단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소에서 비롯된 인공지진이란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가 어떠한 원리로 지진을 유발했는지 궁금합니다.

지열발전소는 지하의 뜨거운 열을 지상으로 끌어와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입니다. 이때 지하의 열을 지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죠. 차가운 물을 열이 있는 지하 4-5km 깊이까지 주입하고 열을 흡수한 지하의 물을 다시 지상으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이 뜨거운 물로 만든 증기를 통해 발전기를 작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포항 지역발

전의 경우 높은 지열을 활용한 전기 생산을 목표로 지하 4,500m 깊이에 주입정*과 생산정**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물이 주입정과 생산정 사이를 지나가면서 열을 얻는 통로 및 저류층***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수리자극****을 실시해 저류층을 형성시켰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액체와 기체가 단층에 직접 주입됐고 이렇게 주입된 액체와 기체는 단층면의 마찰을 저감시켜 결과적으로 단층이 미끄러지는 현상인 지진으로 이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의 날씨라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동차의 속도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정지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노면이 미끄러워 브레이크를 밟아도 타이어가 미끄러지고 제어가 되지 않곤 하죠. 비 오는 날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은 노면 위 빗물이 아스팔트와 타이어 사이에 마찰력을 감소시켜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포항의 지질에서 발생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미끄러지지 않을 단층이 외부로부터 주입된 액체와 기체로 인해 마찰력이 감소되면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Q6.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진조기경보 체계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016년 지진조기경보는 시행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후 지진 감시망 조밀화와 분석체계의 정밀화를 통해 신속한 지진 감지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졌죠. 복잡했던 정보 전달 체계 또한 기상청에서 각 방송국과 주요 언론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수정돼 지진조기경보 시간이 단축됐어요. 지난 2016년 경주지진의 경우 최초 지진관측으로부터 경보 발령까지 총 26초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2021년 제주도 서귀포 서남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최초 관측으로부터 12초 후 경보를 발령해 총 14초를 단축했습니다.

*주입정: 암반이나 얇은 토양층 안쪽에 더 깊게 주입하기 위해 만든 기계
**생산정: 지열 발전 설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수층에 존재하는 고온의 물을 끌어 올리려고 파 내려간 구멍
***저류층: 석유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일정부분의 지층
****수리자극: 고압력의 액체를 이용해 지하의 암석 등을 쪼개는 기술

윤성민 기자 06seongmin@hufs.ac.kr

대한민국의 리더, 미래육군의 중심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2023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지원자격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학군 정시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학군 사전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기간 : 2023년 3월 2일 ~ 4월 5일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일정 - 필기고사 : 4. 15.(토), 합격자 발표 : 5. 4.(목)
- 면접평가 : 5. 22(월) ~ 6. 9.(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8. 14.(월)
※ 세부사항은 '23년 모집요강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군단
서울 02)2173-2595 / 글로벌 031)330-4148



힘들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외대학보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개월이 돼 간다. 학보사를 하면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말을 술하게 들어왔는데 그 말이 사실임을 벌써 체감하고 있다. 지난해 수습기자 모집에 최종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감격했던 일이 아직 생생하다. 원래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언제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에 외대학보에서 내 염원을 실현할 수 있으리란 기대에 부풀었다. 지난 개강호에 이어 이번 호는 나를 포함한 106기 기자들이 약 3주간의 방중 교육을 무사히 성료하고 어엿한 정기자로서 발행하는 두 번째 신문이다. 아직은 많은 것이 낯설고 또 새롭다.

독자를 위한 글쓰기에선 고려하고 노력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문장을 가능한 한 축약해야 한다. 기사를 쓸 때 요구되는 긴장도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사소한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어떤 단어가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치열히 고민한다. '아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처럼 일견 사소한 보이는 단어 하나도 전달력과 기사 전체의 통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깊은 고려가 수반되지 않고선 타인을 위한 글쓰기를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 외에도 기사의 △객관성△신뢰성△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확하지 않은 기사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기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외대학보에서의 활동을 통해 책임감 있는 글쓰기에 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다. 내가 쓰는 글의 무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마주하곤 한다. 기사의 주제를 선정할 때부터 당위성과 시의성을 모두 만족하는 주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적절한 주제를 찾아라든 기사를 쓰기 위해선 취재라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때론 취재하는 과정에서 다소 비협조적인 취재원도 만나게 된다. 이번 새내기환영회 공연을 취재할 땐 시야를 가린다는 파카운 시선까지 견뎌야만 했다. 분명 오후의 소산이었겠지만 취재하는 동안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은 서럽기도 하다. 기자의 자력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취재해야 하기에 매사에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따금 장벽에 가로막히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무엇보다도 기사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헌신과 노고가 필요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기자들이 마감일까지 기사의 초고를 써오면 국부장단은 기사에서 수정해야 할 점은 없는지 검토한다. 기자들은 자신이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사항을 기사에 반영하고 이를 다시 국부장단에게 제출한다. 이런 과정이 다음날 오후까지 밤을 지새우며 이뤄진다. 독자들에게 완벽한 글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과 연단의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조판소 사장의 조판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외대학보의 지면이 완성된다.

때론 이런 과정들이 조금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내겐 여전히 신문이 발행됐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이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내 글이 누군가에게 읽혀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큼 기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첫 개강호가 발행됐을 때 느꼈던 감격이 아직도 떠오른다. 그 감격을 마음 속 깊이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힘들더라도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외대학보와 함께하는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된다.



송성윤 기자

[소설 ‘서울의 달빛 0장’을 읽고] 감정은 거래의 대상인가

책 ‘서울의 달빛 0장’은 한 부부의 이혼을 다룬 중편 소설이다. 작가 김승옥은 1977년에 발표한 해당 작품으로 같은 해 제1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주인공은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배우 ‘한영숙’을 만나고 그녀가 유명 배우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호감을 느낀다. 옆 자리에 앉은 것을 인연으로 그녀와 연인이 돼 결혼에 이른다. 그러나 군 복무 시절 앓았던 성병이 우려됐던 그는 병원 검사를 받게 되고 죄책감 때문에 첫날밤 아내에게 이를 털어놓는다. 한편 아내와의 첫날밤, 주인공은 아내가 처녀가 아니란 것에 당황함과 더불어 자신이 처녀가 아니란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내의 태도에 추악함을 느낀다. 이후 아내가 낙태 경험에 많았다는 걸 알게 된 주인공은 아내를 ‘도깨비들이 실컷 뜯어먹다 싫증이 나서 던져 준 썩은 고깃덩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친구들과 술집에 간 주인공은 그곳에서 아내를 접대부로 마주친다. 이를 계기로 아내와 이혼한 그는 이혼의 충격으로 인해 문란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공허함은 그를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도록 부추긴다. 이전의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녀에게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깨달으며 여자의 과거까지 소유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란 걸 깨닫는다. 이에 어머니가 사주신 아파트를 팔고 고급 승용차와 저급 통장을 마련한다. 자동차를 팔고 아내에게 돌아가 자동차를 구경시키며 통장을 들이밀지만 그녀는 이를 위자료라 여기고 이혼을 통감하며 침울해한다. 주인공은 끝내 다시 시작하지고 말하지 못하고 대신 가끔 한영숙의 아파트로 놀러 가도 관찰했다. 물음을 내뱉는다. 그 순간 그녀에게선 코피가 난다. 주인공은 약속을 사 오기 위해 약국에 다녀왔으나 찢어진 통장 조각과 이별의 실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공과 아내의 관계를 파멸로 이끈 건 ‘무언가’의 부재다. 부재란 무언가가 과잉돼 있을 때 존재한다. 주인공에게 ‘현재’가 부재한다. 아내의 과거까지 가지려는 그의 욕망은 자신의 성병 이력을 없던 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한 욕망이다. 따라서 주인공은 현재보다는 자폐적인 부끄러움에 갇힌다. 한편 아내에게 ‘부끄러움’이 부재한다. 돈이라는 미명 아래 행위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책임 의식이 결여돼 있다. 남을 비난할 근거를 찾는 것을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끼는데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속성을 추구하기 위한 탐구가 꼭 필요하다. 관계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닌 타자와 내가 연결된 것으로 각자의 상대성이 충돌하는 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인공과 아내가 가진 부재 또는 과잉은 거래의 만능화 의식이다. 그것은 자본이나 특정한 재물로 즐거움의 감정을 사고팔 수 있으며 사랑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 작가는 사랑을 거래로 재단한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의 파멸을 그리며 이러한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고 그 말로는 비참함뿐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자본과 일시적 자극의 쾌락으로부터 벗어난 송고란 무엇일까. 작가는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작가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작품엔 △노골적인 성적 표현△비속어△신랄한 묘사가 서슴지 않게 등장한다. 이러한 자극성은 자아 속 깊은 내면의 세계를 천착하게 한다. 비극의 세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비극의 유희와 말로를 탐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천착은 자기 자신으로 향해 비극의 극복을 꾀할 수 있게 한다.

김상헌 기자 06heon@hufs.ac.kr

[영화 ‘스파이더 맨: 뉴 유니버스’을 보고] ‘함께’라는 소중한 가치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Spiderman: In to the spider-verse)’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 스파이더맨(Spideyman)과 수많은 평행 세계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스파이더맨에 관한 영화다. 영화는 뉴욕(New York)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웅 스파이더맨과 그와 같은 세계에 살면서 벽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 마일스 모랄레스(Miles Morales)(이하 마일스)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마일스는 삼촌 애런 데이비스(Aaron Davis)와 함께 벽화를 그리다가 우연히 방수능 거미에 물려 스파이더맨과 동일한 신체능력을 갖게 된다. 얼마 후 그는 방수능 거미에게 물렸던 장소에서 스파이더맨이 악당들과 싸우는 모습을 목격한다. 이때 악당 킹핀(King Pin)이 차원 이동기를 가동해 다른 평행 세계에 살고 있는 스파이더맨들을 마일스가 살고 있는 세계로 넘어오게 만든다. 마일스가 살고 있는 세계의 스파이더맨은 마일스에게 악당 킹핀의 계획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당부하며 죽임을 당한다. 마일스는 그의 세계로 넘어온 다른 세계의 스파이더맨들과 합심해 킹핀의 계획을 막고 다른 세계의 스파이더맨들은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세계로 돌아가며 영화는 끝을 맺는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마일스 세계의 스파이더맨은 자신이 유일한 스파이더맨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홀로 킹핀과 맞서 싸우다가 죽는다. 반면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된 마일스는 위기가 발생할 때 다른 세

계의 스파이더맨들과 합심해 킹핀에 맞서 함께 싸운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주위엔 소중한 누군가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른 스파이더맨들 역시 마일스와 똑같은 교훈을 얻는다. 이는 ‘혼자’와 ‘함께’의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인생을 길에 남겨져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인생은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이다. 비록 자신이 인생에서 혼자 남겨진 고독한 사람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소중한 누군가는 반드시 곁에 있기 마련이다. 인생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같이’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같이’의 가치를 찾으면서 함께 하다 보면 어떤 고난이든 헤쳐 나갈 수 있다. ‘혼자’가 익숙해진 요즘 이 영화를 보면서 ‘함께’란 가치가 얼마나 훌륭한 가치인지 깨닫길 바란다.

윤성민 기자 06seongmin@hufs.ac.kr

1076호 학보를 읽고

모두가 맞이할 따스한 봄을 고대하며

향긋한 봄이 찾아왔다. 우리학교는 저마다의 힌잔 시작을 내딛는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가득하다.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은 마치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생활△주거△학습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에 이번 외대학보 1076호에선 △흡연 구역 문제△기숙사 수용 문제△국가장학금 공정성 문제△통학버스 문제 등이 다뤄졌다.

3면에서 살펴본 우리학교 내의 불명확한 흡연구역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건물 내부만 금연구역이기에 이를 제외한 캠퍼스 내의 흡연구역은 임의로 지정된다. 이는 흡연구역에 대한 학생들의 불확실한 인지를 초래했으며 흡연구역 위치에 대한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인식 차이를 만들어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4면에서 다룬 기숙사의 부족한 수용 능력은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더불어 우리학교 학생들의 거주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숙사 선발 기준의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기사에서 제시했듯이 우리학교와 다른 대학교의 기숙사 선발 기준에 대한 비교는 기숙사 선발에 있어 공정함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방 자치단체와의 효과적인 연대를 통한 우리학교 기숙사

환경의 개선을 기대한다.

5면에선 국가장학금(이하 국장)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고려되는 소득 분위 산정에 관해 되짚었다. 국장 지급 선정 기준은 지난 11년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의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소득이 잘못 인정되거나 국장 지급 선정 기준의 가구 수가 4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은 학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사에서 제시했듯 정부 지원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7면은 학생통학버스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이번 학기 통학버스 노선은 일부 수정됐지만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적은 운영 횟수도 개선돼야 할 숙제다. 기사에서 나타났듯 학생들의 통학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버스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 활성화와 그에 대한 홍보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장차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해법이 나오길 바란다. 또한 보다 개선된 통학 환경을 목표로 학교와 학생 사이의 소통이 활발해지길 소망한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우리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민하는 언론의 길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

명나디(일본 · 통일지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76호 학보를 읽고

진정한 봄의 시작을 위해

새내기배움터와 입학식 등 환영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캠퍼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과 같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3학번 새내기들의 실행과 이들을 위한 선배들의 환영은 우리학교에 봄이 찾아왔음을 알렸다. 이번 외대학보 1076호는 특히 학생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내의 문제를 다뤄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충실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3면에선 양 캠퍼스(이하 양캠)의 불명확한 흡연구역에 관해 다뤘다. 해당 기사에선 흡연구역을 관리하는 양캠 총학생회와 시설관리팀이 흡연구역을 각각 다르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했다. 특히 시설관리팀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흡연구역을 언급했는데 이는 학교 측이 그동안 불명확한 흡연 구역 문제와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캠퍼스 부지가 좁아 간접흡연의 피해가 크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설캠에 비해 흡연구역이 비교적 잘 마련됐지만 시범이 모두 산으로 돌아선 구조적 특성 때문에 산발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높다. 흡연구역 제정 및 시설 확충은 학내 구성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4면엔 우리학교 기숙사 부족에 대한 문제를 다룬 기사가 위치했다. 설캠 글로벌홀(Global Hall)을 제외한 우리학교 기숙사 선발 기준에선 성적이 70%로 가장 중요한 판단 지표다.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는 학교 측의 의견엔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배려계층 등

은 가족사에 살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숙사가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대학 생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면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 방식에 대한 불명확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가구 소득액과 선정 기준에 따른 소득분위의 오류는 빈번히 발생한다. 그렇기에 장학금이 정작 필요한 대상에게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지 못해 국가 장학금의 취지 자체가 흐려지고 있다. 교육에 있어 누구나 평등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7면에선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고찰이 이뤄졌다. 특히 글캠의 경우 교통의 제약이 커 통학버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우리학교는 현재 16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해부터는 환교와 서현 노선을 신설해 무료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는 학교 중 양캠 서현을 운영 횟수가 가장 적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양캠에서 이중전공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기에 불편은 더 크다. 학생들이 더 편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봄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세계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으며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지진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있다. 모두가 아픔을 겪는 어두운 겨울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따스한 봄을 누리길 바란다. 더불어 이러한 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국 · 부장 고정칼럼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지난 몇 년간 우리학교는 대내외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초유의 전염병 사태 아래 3주체 총장직선제와 중북학과 통·폐합이 진행됐다. 화두가 된 사안이 많았던 만큼 학교와 학생 간의 대립도 빈번했다.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그 시간은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캄캄한 새벽과도 같았다. 외대학보는 그 사이를 좁히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우리가 쓰는 글이 닿는 그 끝에 서로를 보듬는 이해가 피어나길 바랐다.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우리학교에게 파스한 아침은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번 1077호엔 그간의 어둠을 이겨낼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

학교와 학생 간 소통문제는 우리학교가 오래전부터 골머리를 앓던 문제다. 특히 불합리한 의결구조는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식 행정을 부추겨 원활한 소통을 막는 주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현재 학내 의결구조는 △학생이 의결 구성원에 포함되나 학생 임원 수가 적어 의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학생이 의결 구성원에 포함되나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이 적어 의견이 과소 반영되는 경우△학생이 의결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학생 측에 불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학내 결정 사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들이 만큼 민주적인 의결구조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학교엔 신설학과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변화하는 시류에 맞춰 다양한 학과를 기획하고 있는 학교와 달리 학생사회의 반응은 냉랭하다. 신설학과 설립을 위해선 교원과 입학정원 확보가 필수적

인데 이는 기존학과 인원 내에서 차출돼야 하므로 기존학과와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학과 인력 감소란 표면적인 문제 이외에도 강의 질 하락이나 학과 입지 축소 등 뒤따르는 여러 문제도 학생들의 우려를 가중시킨다. 학교 발전을 위해 새로운 분야의 학과 신설은 필요하나 기존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 연구소의 연구범위는 외국어와 지역학 위주로 편중돼있다. 또한 명목상으론 연구소가 존재하나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실적이 부족하거나 파악하기 힘든 부실 연구소도 존재해 대학 내 연구의 중추를 담당하는 대학연구소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대학연구소는 학과나 학부 차원에서는 진행하기 힘든 전문적인 분야를 다룬다는 데 있어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제 의미와 목적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선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연구소의 기틀을 다지고 연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재정비를 통한 질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던 문제들을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보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학보의 새벽은 뜨겁다.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 기사 수정은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 저녁까지 이어진다. 새벽을 건디는 요령은 없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치워나갈 뿐이다. 다만 우리는 알고 있다. 긴 새벽이 끝나면 결국엔 아침이 온다는 것을. 외대학보는 우리학교가 나아가길 그 모든 결단의 순간에 함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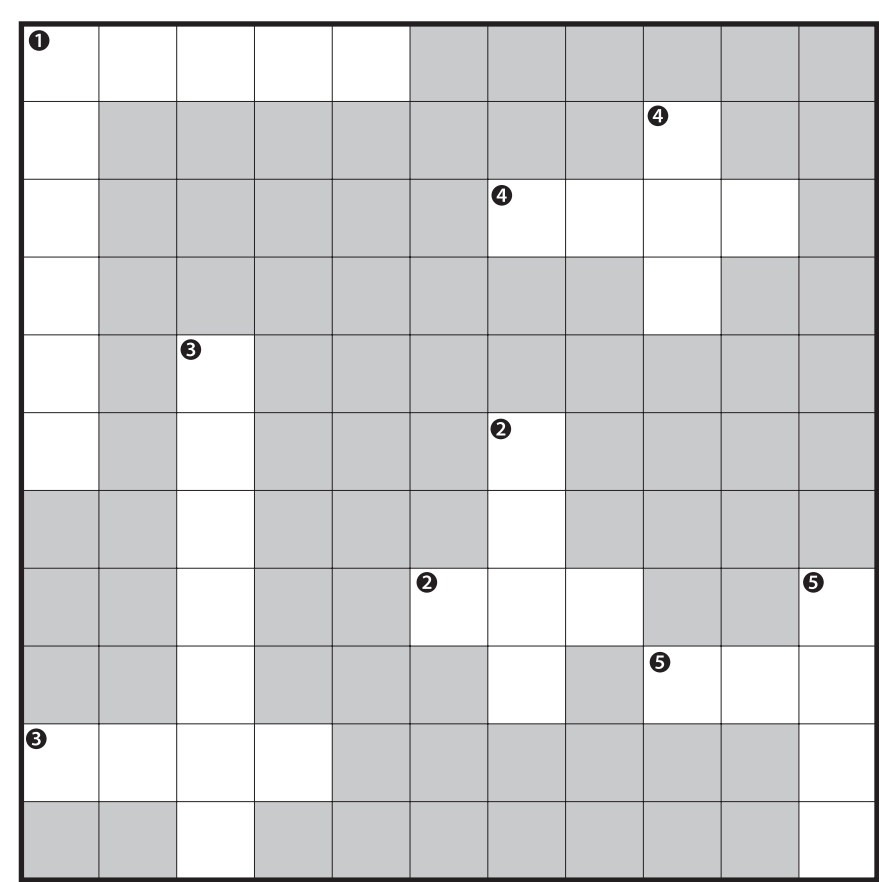
한 비 부장 04hanbi@hufs.ac.kr

외대만평



김하형(아시아 · 마이너 21)

십자말풀이



- 가로**
1. 지난 1991년에 설립된 우리학교 ○○○○○는 우리 학교 재학생과 동문을 위해 매해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2면 참조)
 2. 지난달 28일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국화홀에서 우리학교 ○○○ 6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 행사가 진행됐다. (2면 참조)
 3. 우리학교 ○○○○에서 학생 투표반영 비율은 다른 학내 구성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3면 참조)
 4. 학교의 독점적 ○○○○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의결 기구와 개방형 이사제의 현실화 △총장 임명 및 운영방식 개편△학생자치 기구의 법제화 등을 논의해 학내 구성원들의 주체화를 명확히 해야 한다. (3면 참조)
 5. 우리학교엔 현재 4개의 연구센터와 연구센터 산하의 ○○○ 33개가 존재한다. (7면 참조)
- 세로**
1. 지난 8월부터 9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2023학년도 1학기 ○○○○○○ '계묘한 이야기'가 개최됐다. (2면 참조)
 2. 우리학교가 신설학과 설립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학과 학생은 학과 ○○○○ 및 교직원 수가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된다. (4면 참조)
 3. 권익위 ○○○○○○○○에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을 찾아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2면 참조)
 4. 우리학교엔 현재 4개의 연구센터와 연구센터 산하의 ○○○ 33개가 존재한다. (7면 참조)
 5. 각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공적 연구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을 단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8면 참조)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기후 위기 시절의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 웃음소리가 화르르 들리는 캠퍼스. 오랜만이다. 팬데믹으로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식당에도 커피숍에도 강의실에도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로 붐빈다. 마치 처음인 듯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한다. 금방이라도 꽃망울 올라올 것 같던 따뜻한 봄기운이 꽃샘추위로 싸해졌지만 우리 대학에 다시 깃든 이 활기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캠퍼스를 바라보며 팬데믹 이전과 이후, 대학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가능해본다. 학교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든가 챗GPT나 딥 러닝의 등장으로 인한 교실 강의의 변화 등을 말하기 전에 다른 시각에서 화급한 시절의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2년 한국인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를 혹시 아시는지?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기후 변화'라고 한다. 기후(climate)와 날씨(weather)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 날씨는 특정 장소의 특정 시간의 단기적인 대기 상태다. 어제는 흐렸고 오늘은 비가 내리고, 이게 날씨다. 하지만 기후는 특정 지역 혹은 전지구적 차원의 장기적인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한다. 적어도 30년 이상의 기간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 예전에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라는 말이 많이 쓰였고, 가령 때 이른 한파를 맞으면 사람들은 '에잇, 지구 온난화도 사실이 아니네.'라는 반응을 보이곤 했는데, 이는 기후와 날씨를 혼동하는 말이다.

20세기 후반에 많은 우려를 낳은 '지구 온난화' 문제는 21세기 들어서 '기후 변화'(climate change)라는 말로, 이어서 '기후 위기'(climate crisis)라는 말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위기를 넘어서 '기후 파국'(climate catastrophe)으로도 이야기된다. 위기가 파국으로 바뀐 것은 그만큼 기후문제가 우리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의 변화는 정말이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률이라든가 전 세계 해수면의 변화가 다음 세대의 온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회의 때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장관이 바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양복을 입고 허벅지까지 물에 잠긴 채 연설을 하던 그의 모습은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가라앉는 것이 투발루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몇몇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이나 재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지구 위에 깃든 우리 모두의 삶, 사회제, 경제적 일상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뭄, 폭염, 폭우, 산불, 해수면 상승, 해수의 산성화 등 환경의 가파른 변화가 우리 인간 삶과 직결되기에 기후 위기는 지금 시대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화급한 삶의 조건이 아닌가 싶다. 가뭄은 흉작을 낳고, 흉작으로 인한 식량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때 아닌 산불이나 홍수, 지진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도 심각하다. 기후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알려진 온실 가스의 배출 문제는 단순히 국가적 층위의 문제가 아니다. 소득 분위별로 큰 차이가 나는 문제이기에 한 나라 안에 기후 위기의 주범과 기후 위기의 피해자가 공존하고 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시민들의 실천적 운동이 더 중요한 이유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대학 운영에 대해 생각해 본다. 환경부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실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퍼스의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의식을 갖도록 2011년부터 그린캠퍼스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50개가 넘는 대학이 선정되었지만, 우리 학교는 한 번도 그린 캠퍼스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양 캠퍼스 통틀어 우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린 사업이 적지 않고 2030년까지 제로 에너지 캠퍼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로드맵이 수립되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일상의 결을 바꿀 수 있는 변화 노력은 체감되지 않는다. 친환경 생활을 주도하는 학생과 교직원 활동을 후원하고 환경 인문학과 생태 인문학을 교양 및 전공 교육에서 강화하여 문제의식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와의 그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기획해 볼 수 있다. 당장 내일부터 1인 1텀블러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기후는 변화도 위기도 넘어 이미 파국으로 치닫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기후 재난에 대비하는 교육의 실천적 현장성을 강화해야 할 때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4sangye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김상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치안 일선을 수호하는 경찰들의 변호사 김민정 경찰청 송무관을 만나다

김민정(서양어·독일어 96)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취득하고 지난 2016년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서울특별시 경찰청 조직법무계 송무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무관은 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사건 △법률상담△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다. 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법체계의 면면을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 치안의 일선을 보좌하는 경찰의 사내변호사인 김 변호사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독일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특별히 독일어를 좋아해서 독일어과를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학교와 학과를 결정할 당시 독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독일의 통일 소식을 듣고 추후 독일 관련 수요가 많아질 거란 기대로 독일어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대부분 학생이 그러하듯 명확한 꿈이 없었어요. 전공에 대한 흥미가 생기지 않아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과 내의 학회나 동아리 활동을 했지만 그마저도 열정을 쏟지는 않았어요. 3학년이 된 이후 명확한 목표 없이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생겨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Q3. 변호사란 꿈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변호사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그동안 관련 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고시 공부에 전념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고시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어요. 열정적이고 즐겁게 공부했지만 결국 행정고시 합격엔 실패했습니다. 당시엔 어린 나이였고 실패했다는 좌절감이 커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이후 진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로스쿨이 생겼다면 도전을 권유해주셨죠. 제가 행정고시를 준비했던 경험이 로스쿨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우리학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Q4. 지난 2016년부터 서울특별시경찰청 송

무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송무관이란 직업이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의 주 업무는 무엇인가요?

송무관이란 송무를 하는 행정관을 일컫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소송 업무를 하는 행정관이지요. 경찰 관련 국가배상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사내로 들어오면 법원에 가서 대리로 변호 업무를 수행해요. 이외에도 법률 자문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Q5. 변호사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전 변호사 생활의 대부분을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보냈어요. 주로 경찰 관련 업무를 맡아 경찰들과 가까이 지냈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경찰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한 경찰이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국가인권위원회 진정△형사소송에서 억울한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가 생각나네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수년 동안 해당 경찰관분과 상담하고 관련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했어요. 경찰관이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해당 경찰관은 도움을 받기 힘들어 대부분 혼자서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 그런 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제가 도움을 드린 경찰관은 2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고 복직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워하시던 그분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Q5-1.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겪은 고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 공감을 잘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타인이 겪은 부당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누군가가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부당한 처분받았을 때 당사자에 감정 이입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각 분야에서의 활동이 변호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고시에 낙방했지만 행정학 석사 학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권익위 행정규칙개선팀에 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을 찾아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법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 중 잘못된 법도 존재할 수 있다는 넓은 시야를 기르게 된 거죠.

한편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바로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도 좌절하며 당분간 공부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여성 리더십 개발 교재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 리더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웠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Q7.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책임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타인의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책임감이란 가치 아래 다양한 일에 도전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일만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 자기 반성을 자주 하는 편이라 맡은 일을 대충 내버려 두기 어려워해요. 결국 누군가가 날 믿고 맡긴 일기에 책임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8. 직업 외적으로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행정법 공부예요. 지난 2021년 우리학교 최승필 교수님의 지도로 행정법 박

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경찰 행정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업적을 남기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법 정책 연구입니다. 현재 통일법 정책 연구회란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순식간에 통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법△사회△정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통일법 정책 연구회는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정책을 구축해보자는 목적을 가진 비영리·비정치 단체예요. 현재 3년째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됐을 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Q9. 변호사를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많이 이야기한 주제인데 변호사를 꿈꾼다면 본인을 믿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뻥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낫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지금 당장 목표를 위해 시작한다면 열정이 쌓여 공부에 가속도가 붙고 더 빨리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즐기란 말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남들보다 변호사 생활을 늦게 시작한 편이지만 그 덕분에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아요. 실패로 인해 여러 가지 길에 닿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줄 길을 찾을 여러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김상현 기자 06heon@hufs.ac.kr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그들과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거목과 같은 사회공헌기업(CSR)을 지향합니다



Forbes 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
10th Sep. 2009 / 1st Sep. 2010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년 연속 포브스가 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00대 유망 기업 (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에 선정 되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40여개 국에 수출하는 한국인이 주인인 다국적 제약기업입니다. 예술문화사업,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여러나라에서 펼치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한국의 일과 문화를 수출하는 글로벌 사회공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다국적 제약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www.kup.co.kr